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만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 총동원 전도 집회!

일 시 : 5월 21일(다음 주일)

대 상 : 새가족,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

집 회 : 모든 교구 및 교회학교 모임 장소

예 배 : 주일 3·4부 예배 참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마 1:21).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마 11:25).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바로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스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마 16:15). 예수님은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골 1:23).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도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일(21일),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에서 일제히 진행될 총동원 전도 집회를 영혼 구원을 위한 새 출발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영혼들(새가족), 한 때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등록했지만 아주 가끔씩 예배에만 나오며 잠자고 있는 영혼과 1년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강권(마 14:23)하며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특히 주일 3·4부 예배 시 위임목사님께서 새가족,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을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는 전도 집회를 전후하여 반드시 3·4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 집회는 전도의 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 전 1:23).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

그리스도의 영광

* 그리스도의 영광 (마 23:37)

1.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한 그의 신적인 영광(마 10:37)
2. 신랑과 신부(제 21:2,9)
3.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눅 7:36-40)
4. 달란트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권위(마 25:14,15)
5.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권위(고후 5:14,15)
6. 죽기로 결심하심(마 22:22)

7. 그리스도의 초청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요 7:37,3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영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에 생수에 관해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비교하여 보자(요 4:10). 이 여인이 간절하게 찾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인을 그녀가 알았다면 의심 없이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경하는 조상 야곱을 운운하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묻는다. 주님은 이 말에 대해 더 밝히 설명하여 주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어떻게 한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때는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큰 절기였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주님은 절기의 마지막 날에 최종 결단을 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섰다(요 7:11; 롬 8:38,39).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잠시 다른 생각들을 제쳐놓고 이 예수님이 담대하게 외치는 음성을 들어 보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은혜의 초청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깊고 높으며 또 제한이 없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유하시며 누구라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터무니없는 말, 혹은 과장하는 말이라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에 너무 낙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끝 수밖에 없는 신도의 말씀이다. “오

라”고 부르시는 그 거대한 초청의 말씀 뒤에, 더 크고 방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이 큰 무리들을 향하여 서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많은 군중들과 세계를 향해서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하는 성령을 “예수님 그 자신으로부터 받아 마시라”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일까? 만일 예수께서 엄청난 생수를 얻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다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이 생수를 주는 자도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깨신 것이 아닌가?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향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이야말로 의심 없이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체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렐 2:13, 17:13; 시 36:9). 이 생수는 온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솟아쳐 나오고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이 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 19:28). 생수의 근원되시는 바로 그분이 목이 마르시다니! 그러나 이는 절대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패러독스를 수 없는 그 실재인 것이다. 이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온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사역이다(요 1:29).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그리스도께 오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제책이 내려진 것이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공의의 판단이 내려진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생수의 근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요 19:30). 바로 이때 예루살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후로 누구든지 하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마 27:50-53).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며 고백하고 있다(마 27:54). 마지막 순간에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신다(골 1:21). 주님은 목마르시 마르신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피와 물도 모두 솟으신 것이다(요 19:34,35).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온 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것이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다.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간다. 창에 고쳐가여 물과 피를 흘린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산 188장).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외에 누가 반석이요”(사 18:31). 이 하나님께 힘으로 내게 떠들 따지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히 하실 것이다. 이 멸절 마지막 날에 무리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주 그리스도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할렐루야!

Sermon for Next Sunday |

WHAT DOES GOD REQUIRE OF YOU?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If I come to the Lord with a humble heart and sincere love, how much will He accept me? On Judgment Day, as I stand before Him alone, will my life pass His ruling? Truly, if I say I love the Lord, and proclaim that my heart and everything is His, how much can He really trust me? He is one hundred percent holy and one hundred percent correct. How holy am I? Am I holy enough to enter heaven? Are you holy enough to enter heaven? Let us review some of the believers in the Bible to see how they measure up.

The Pharisees and scribes believed they always came to God with their whole hearts. They loved the Bible and believed that God was the only one who could save them. Jesus, who will execute judgment upon all, said this about them,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have seated themselves in the chair of Moses; therefore all that they tell you, do and observe, but do not do according to their deeds; for they say things and do not do them"(Mt. 23:2&3). These men appreciated God with their mouths, but not their hearts.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their reputations than God's reputation. They emphasized law and tradition, not grace. Law and tradition will not help anybody to pass their judgment call. Jesus said of one scribe, who knew God's law very well,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Mk. 12:34). Not far means this man was unsaved. He was close, but he was not close enough. Salvation requires more than knowing God, His laws, and any traditions.

Paul talked to Felix, a political leader, about faith in Christ Jesus, and even discussed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the judgment to come, but Felix became frightened and told him, "Go away for the present, and when I find time I will summon you"(Acts. 24:25). He never found the time. Even though he agreed with some of what Paul was preaching, he still lost his opportunity for salvation. James 2:19 tells us,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the demons also believe, and shudder." Felix partially agreed and the devil totally agrees, but both are in trouble. Pontius Pilate, another political leader, had the truth told him by Jesus-Himself, "You say correctly that I am a king. For this I have been born, and for this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who is of the truth hears My voice"(Jn. 18:37). Pilate obviously was not of the truth. He searched Jesus and found no guilt in Him (Acts. 23:4), but he was scared of the people, so he went ahead and let them crucify Him. He had no courage. Salvation requires more than being scared.

King Agrippa had the best chance of receiving salvation when Paul went before him on charges the Jews had made. Paul preached to him the gospel pure and simple. He almost accepted it, "Agrippa replied to Paul, 'In a short time you will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And Paul said, 'I would wish to God, that whether in a short or long time,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 except for these chains'"(Acts. 26:28&29). Agrippa fell from grace because salvation is more than almost being persuaded.

The centurion soldier who finished the crucifixion of Jesus acknowledged His innocence, "Now when the centurion saw what had happened, he began praising God, saying, 'Certainly this man was innocent'"(Lk. 23:47). He even acknowledged who Jesus was, "When the centurion, who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saw the way He breathed His last, he said,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Mk.

15:39)! This soldier witnessed Jesus' death, but he did not receive salvation. Salvation is not about recognizing Jesus or your feelings about Him. You have to deny yourself and follow Him.

A wealthy young man asked Jesus, "Teacher, what good thing shall I do that I may obtain eternal life? And He said to him, 'Why are you asking Me about what is goo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but if you wish to enter into life, keep the commandments.' Then he said to Him, 'Which ones?' And Jesus said, 'You shall not commi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young man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what am I still lacking?' Jesus said to him, 'If you wish to be complete, go and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But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statement, he went away grieving; for he was one who owned much property"(Mt. 19:16-22). Salvation is more than keeping God's commandments.

Judas, one of Jesus' disciples, loved Him very much. He witnessed all Jesus' sermons and miracles, and even sat with Jesus at His last supper, but he betrayed Him for thirty pieces of silver (Mt. 26:15). Ananias and his wife, Sapphira, were also followers of Jesus. They claimed to love the church, but held back just a little of their proceeds (Acts. 5:2). Like Judas, they also missed salvation because salvation is more than just accepting Jesus.

One of two criminals hanging next to Jesus on the cross said to Jesus,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But the other answered, and rebuking him said, 'Do you not even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And we indeed are suffering justly, for we are receiving what we deserve for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And he was sayi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39-43). All his life this one thief was a sinner, but He asked Jesus to give Him a favor, and he received salvation!

My dear friend, all the people who were just one foot away from Noah's ark missed salvation. You have to enter the ark. Only eight people were on that boat! So, how can you make sure you enter into salvation? How can you do justice, love kindness, and walk humbly with God? Luke 13:3 says,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John the Baptist cried out to everyon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t. 3:2). Peter said,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Acts. 2:38). He also said, "Therefore repent and return,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in order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Acts. 3:19). Repentant people never bring up their own opinion. They never just appreciate Jesus with their mouths, while inside grumbling and complaining. Such behavior means there has been no repentance, which means there has been no change, which means there is no salvation. Please repent! Drop your pride and deny yourself, get rid of all your opinions. Take the cross that God gave you with faith and follow Jesus to salvation. Amen. 🙏

다들 주일 설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김성완 목사

만약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을 맞이주시겠습니까? 심판의 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그 때에 나의 삶이 그분의 통치를 피해야 할 수 있을까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주님은 온전히 기록하시고 정죄무오하시나. 나는 얼마나 기록할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록할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록할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몇몇 신자들을 통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마 23:2,3).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보다 자신들의 명성이 더 관심이 많았습니. 그들은 은총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과 전통의 도움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멸지 않도다”(마 12:34). 멸지 않다는 말은 곧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거의 근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모든 전통을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벨릭스와 빌라도

바울은 당시 정치적권력자였던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도 강론했습니. 그러자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지방은 가라 내가 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행 24:25).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신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바울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에는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고보서 2:19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느니라” 벨릭스는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마귀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둘 다 공경에 처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느니라”(요 18:37).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사했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행 23:4).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아그립바 왕

아그립바왕은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그 자신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순진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아그립바왕은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기 뻔했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설교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사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행 26:28,29). 그러나 아그립바 왕은 용이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총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은 주님의 무죄를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눅 23:47).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

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 15:39)!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16-22).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가롯 유다와 한 부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온 삼십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마 26:15). 아나니아와 그와 아내 삽비라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지만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행 5:2). 유다처럼 그들도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죄인 중의 하나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함을 무엇에 가로되 내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39-43).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불행을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은총을 구했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사하는 설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겨우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여덟 사람만이 방주에 올라갔습니.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누가복음 13:35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와 같이 망하리라”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할 방법을 얻으라 하였으니 너희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저하게 없애버리시요, 하나님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불평불만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결국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저히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막 14:34~38)

모든 사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기도는 왜 해야 하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기도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어 한다. 하나님인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예수님도 새벽이명에 기도하셨다(마 1:35).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몹시 피곤하셨고 지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셨다. 삶과 선교의 현장 등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자가 되니 말라. 죄악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딤후 4:31).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기도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하실 것이다(마 7:8).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히 6:12).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희의 행함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나”(마 11:25). 십자가의 은총은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는 삶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각각 종신으로 행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였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행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는 위대한 세 기도가 있다. 우선

모세의 기도를 보라. 신명기 3장에 보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를 소망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복음서에 기록된 겠새바네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비껴가기를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이었다. 위대한 복음의 일꾼 바울을 보라. 그는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은 달랐고 거기에 바울은 순종하였다(고후 12:7-9). 이처럼 우리의 간구와 주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성령을 좇아 기도할 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갈 5:16).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

감사하며 기도하자 인내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법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살전 5:16-18).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움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사 47:1). 십자가의 은혜를 전심으로 깨달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마 18:19). 단지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사 55:8).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간구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잠 3:5). 사랑과 은총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참생명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사 9:1-11). 한나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였다(삼상 1:27,28).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임”(사 65:24).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총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 순종, 감사, 기대가 넘칠 수밖에 없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뵈 되신 주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는 날 인도하소서.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밤 지나고 자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찬 429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드리는 청소년들, 예본 찬양대



구제원장, 예본 찬양대장

예본 찬양대는 주일 5부(오후 3시)예배를 섬기고 있는 고등부 찬양대입니다. 특히 예본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기도와 말씀을 나눈 뒤 파트볼로 연습한 후에 전체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물론 주일 오전에도 예배 시작 두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5부 예배뿐만 아니라 고등부 예배(오전 11시)찬양도 주님께 영감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볼 때 시간을 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이들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땅의 학생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저녁 늦게까지 수업, 자율학습, 학원 등으로 노코를 새 게 이 바쁘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예본 찬양대원들의 마음은 그대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모입니다. 일단 연습에 들어가면 오직 찬양에 빠져 들어 허기를 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찬양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마치 금요찬양 시에 위임목사님의 “가사 속에 들어오라”는 말씀처럼 찬양대원들은 찬양

이 주는 은혜 속에 흠뻑 빠져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 아니면 세상?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처럼 쉽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본 찬양대원들이야말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주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들에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공존관계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청소년들은 오직 하소연이냐? 특히 우리 나라의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은 끝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밀린 공부를 위해서 학원 또는 과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본 찬양대원들은 황금 같은 주말에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에는 이들 중 30여 명이 여름방학 때 단기선교를 가기 위해서 신원을 마련 상제합니다. 이 모든 결정에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드리는 예본 찬양대원들의 걸음 걸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한 이들 안에는 분명히 나쁜대로의 고집과 격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찬양의 일꾼,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망글까지

험한 밀림을 지나 천한 복음

‘주여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은 현지인의 인도에 따라 알지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갔습니다. 자갈 길을 지나고 진흙 먼지 날리는 피악벌이 내리 쏘는 길을 한없이 가도 집이라곤 하나도 없고 울창한 밀림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1시간 남지 걸었을 때, 온몸 진흙탕 물이 범람한 큰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그마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또 십 여리 길의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오 주여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100m가 넘는 출렁 다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저의 대원들은 사력을 다해 무사히 다리를 건너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천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도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땀이 주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또 다시 걸기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 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주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우리를 보내 일하시는지구나!” 대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밀림 속의 독립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의 주민들이 7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준비한 말씀을 힘껏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들은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아멘”으로 하단했습니다. 우리들은 영접기도를 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저희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주 안의 형제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비록 선교지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순간적으로 ‘선교가 가능할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정말로 선교가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동행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김복춘(집사, 12교구)

선교 준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 출발 3주 전에 나는 허리를 다쳐서 고생하였고 또 출발 4일 전에는 안악의 부작용으로 눈이 많이 붓고 가려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절한 기도와 치료를 통해 나았다.
- 출발 전에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3건의 일들이 모두 해결되었다(참 신기하다).
- 항상 해외에 나갈 때는 유언장 준비하고 여행차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면 배가 이번에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갔다.
- 사실 선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항공기 탑승 후, 기도하는 중 마음이 바뀌어 단 한 개의 선물도 사지 않았다.
- 나를 포함해서 우리 팀원들은 선교구호 및 각 항목 내용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 복음전파 사역을 하는 동안 집, 가족, 할 일 등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백 명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외쳤다.

위의 내용들은 선교를 가기 위해 참여한 후부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과정을 요약해 본 것이다. 하나 하나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할 때만해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선교를 갔다 온 지금도 모든 것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가야만 하는가?’ 라는 갈등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은 차곡차곡 진행되었다. 그렇다.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전히 죄인의 지리에 서 있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다.

이재철(집사, 3교구)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선교의 도구로 부르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는 선교를 결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훈련도 나름대로 철저히 받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3개월간의 훈련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더욱 견고히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사역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그처럼 어두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난 밤의 찬동과 번개, 광풍때문에 다음날의 사역을 열려하였으나 주님은 밝은 날에 햇빛으로 우리를 사역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준비된 모습을 속에 우리는 또렷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따라하는 영접기도 속에 “아멘” 하시는 할미나와 어린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였으나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점점 담대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에 힘입어 축조 전도 중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사역기간 내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은경(집사, 1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6일(월) - 5월 24일(수)	3교구 2지역	허만선
5월 16일(화) - 5월 25일(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화) - 5월 17일(수)	3교구 1지역	김성호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7지역	박종태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5지역	최홍섭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5교구 8지역	박옥현
5월 12일(금) - 5월 20일(토)	8교구 7지역	정성숙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일(월) - 5월 9일(화)	10교구 4지역	조영철
5월 1일(월) - 5월 9일(화)	11교구 3지역	장경수
5월 1일(월) - 5월 9일(화)	3교구 6지역	문영규
5월 1일(월) - 5월 9일(화)	16교구 2지역	현준봉
5월 2일(화) - 5월 10일(수)	1교구 3지역	구원섭
5월 2일(화) - 5월 10일(수)	초등부(1)	지규성
5월 2일(화) - 5월 10일(수)	3교구 8지역	한현식
5월 3일(수) - 5월 12일(금)	7교구 2지역	최대환
5월 5일(금) - 5월 13일(토)	9교구 2지역	김중성

어린이처럼 겸손히!

저는 올해 처음으로 단기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의 매우 더운 날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였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또래의 중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수상 가옥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참 복음을 전하다보니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또래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린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민정(중동1부)

심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변에서 저를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황달에 걸렸고 발이 너무 아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하려가던 중, 집 근처에 사는 천현 교회 집사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술을 받은 뒤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난 후부터 저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장사할 때 30분도 자리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장사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싶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아들에게도 전도하여 지금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밖에 교회에 못 나왔는데 이제는 금요일 될 날이라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가고 싶다고 사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같이 쌓아두시라 하신 말씀이 저를 더욱더 십자가에만 매이게 합니다. 이처럼 심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항상 은혜로 흠뻑 젖게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희(성도, 2교구)

예수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이 가까와오네요. 선생님! 벌써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시간이 반년이나 흘렀어요. 그 반 년간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 선생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동 2부에 처음 왔을 때 그저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눈겨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기도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시며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 주신 선생님! 시험과 경쟁으로 서로 의지할 때가 없던 저희들을 마치 포근한 나무처럼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신 선생님께 이제껏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수련회 부흥회에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며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눈물의 자국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저희들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를 위해 새벽마다, 모두가 잠자는 한 방중에 기도해주시고 '현지의 예비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며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자녀가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오지예(중동2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의
시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맑은 저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구역을 돌본 저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구역을 돌보는 때면 구역 식구가 없어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정말로 구역모임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배우며 십자가 안에서 한 지체가 됨을 서로 확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과 사랑이 조금씩 퇴색되며 때로는 형식적으로 구역을 돌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전화심함으로,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쉬고, 더울 때나 매우 추울 때, 빙개도 많지마져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매 주 수요일, 구역장 영성 훈련은 한 주간의 나태해지려는 저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필름을 받은 그 자리에있기에 구역장 영성훈련을 통해서 저는 깨지고 부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너 위해 피 흘렸는데 너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영적인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섬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저의 오래된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준비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나눌 때 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기에! 구역장 영성훈련을 통한 깨어짐이 있기에! 수요일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권경애(집사, 4교구)

교회 탐방 학교 전도대(소년부)

사랑의 열풍! 전도의 열풍!

지금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풍! 전도의 열풍으로 뜨겁다. 특히 5월 21일의 총동원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움직임은 매우 역동적이다. 교구뿐만 아니라 교회라고도 총동원 전도 주일일 때를 맞이하는 발강음으로 분주한데, 특히 영혼 사랑을 위해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년부의 학교 전도대원들을 만나 보았다.

소년부 학교 전도대는?

소년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도대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한 분의 선생님을 배정하여 주간 또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성서지도장, 조영경)

전도는 왜 해야 하나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영민, 학동초등학교)

우리가 해야 할 대단한 일이에요. (최현수, 학동초등학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조경민, 역삼초등학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류성진, 학동초등학교)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 주변에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민, 역삼초등학교)

오전 친구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가게 했어요. 이 친구와 연락처서 주일 오전에 만나면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류성진, 학동초등학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랑 게임으로 전하기보다는 자연스레 이야기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락처 받아서 어려웠지만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에 만나는 아이들이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김영민, 교서, 도성초등학교)

토요일마다 학교를 찾아오신 교서 선생님께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그



런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김아름, 도성초등학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한 친구들이 자꾸 핑계를 대어 나오지 않아요. 그

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요. (이영민, 학동초등학교)

예수님을 우리들 위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친구들이 잘 듣

지 않아도 계속해서 전도할 것입니다. (문성희, 논현초등학교)

십의 여부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교서, 논현초등학교)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반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최현수, 학동초등학교)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고 나면 뿌듯해요. (이영민, 학동초등학교)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다들 저를 피해요. (이영민, 학동초등학교)

토요일마다 나가서 아이들이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나 아니라도 근처의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구만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교서, 역삼초등학교)

오랫동안 부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욱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피하고 연락치 않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

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교서, 학동초등학교)

전도대원을 위한 전도원칙은?

우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대원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실제 전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김영복, 성서지도장)

5월 21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위해서?

모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교서)

모든 소년부 학생들이 한 명의 영혼을 데려오는 1:1, 1인1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예배실에 빈 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가집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영민)

일마비한 영혼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성민, 교서)

단순히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영민)

처음에 전도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쫓아와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요. (최현수, 교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복, 교서)

총동원 전도 주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전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교서)

전도는 오직 주님께 도우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며 전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로 저희 소년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복, 성서지도장)

만약이면 이들은 전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동시에 전도를 통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중요기에 영감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의 믿음으로 감동하고 있었다. 겉으로 볼 때 전사스러운 아이들이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분명히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의 종이었다.

(편집실)

배 영환이 주를 찬양



한 336장 여러해 동안 주 떠나

모태 신앙이었지만 나는 주님을 모르는 지금의 남편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을 사귀면서 어느덧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완전히 신앙생활은 접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일 관례로 해외에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어린 남매를 외국에서 키운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타국에서의 외로움 때문에 가끔씩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에 비로소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신앙의 짐으로 부르고 싶고 그 먼 외국 땅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끊고 저 홀로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현저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땅자를 아내에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더 이상 이전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피 흘린 십자가가 있었단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이름을 찬양해"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1년 뒤 드디어 남편은 세례를 받았다. 믿지 않던 사택 사귀고 시부모님을 비롯해 거의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찬송을 부르던 그 때의 마기의 다락방 같은 모습이 필름의 한 장면으로 펼쳐져 다시금 마음이 벅차 오른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에 언제나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다. 나의 마음 속에 늘 계시는 '예수님이 잔뜩'이기에 이제는 어떠한 장래도 두렵지 않다.

김광대(집사), 팔월루아 전담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06	박재환	8	대학부	김수영(10)	1435	김민준	4	장년2부	황영희(4)
1407	김희철	19	청년1부	김진규(8)	1436	박근민	14	외신부	김성혁(1)
1408	이준열	16	소망부	윤숙희(8)	1437	김소현	19	외신부	이영희(15)
1409	김태현	2	청년2부	임옥화(8)	1438	송민호	19	대학부	박숙희(14)
1410	황수현	19	대학부	정민준(1)	1439	홍민준	19	청년1부	이현주(14)
1411	황성민	2	고등부	한지민(8)	1440	조준호	19	청년2부	정순옥(8)
1412	한지민	9	고등부	한용태(10)	1441	리소현	19	청년1부	한용태(6)
1413	최현수	19	대학부	문복희(4)	1442	이호성	6	청년1부	한용태(6)
1414	최희철	19	대학부	이영희(4)	1443	김민준	19	대학부	문복희(4)
1415	노준서	8	장년3부	박영희(4)	1444	정준호	19	청년1부	
1416	김영호	19	청년1부	조미경(2)	1445	이재현	19	외신부	김영선(10)
1417	변지민	19	대학부	이영준(4)	1446	제기	19	외신부	정순옥(13)
1418	최효성	19	대학부		1447	송지현	19	고등부	임창희(7)
1419	조기숙	1	장년1부		1448	강건록	19	고등부	전순현(13)
1420	홍성미	12	청년2부	정현민(1)	1449	이아람	19	대학부	이창준(4)
1421	정현민	12	청년2부	정현민(1)	1450	김우익	19	대학부	김우정(4)
1422	신은하	18	장년2부	최영희(17)	1451	박민준	19	대학부	한기희(4)
1423	김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7)	1452	가나	15	외신부	김순영(8)
1424	박지민	19	청년1부	정민준(1)	1453	김재현	19	청년1부	송준호(4)
1425	황성민	19	대학부	조영태(4)	1454	태호	19	외신부	나기태(17)
1426	홍수현	19	대학부	김영희(4)	1455	리소현	19	청년1부	나기태(17)
1427	이재현	3	고등부	안성희(8)	1456	송민호	19	외신부	홍복희(4)
1428	이호성	19	청년1부	김지현(1)	1457	황지민	19	외신부	배민준(10)
1429	이재현	1	장년2부	이순희(4)	1458	김세은	19	청년1부	
1430	김창수	1	청년1부	이순희(4)	1459	이영희	3	청년1부	김태희(1)
1431	캐슬이서우	1	청년3부	이영희(1)	1460	김성수	19	청년2부	한기희(4)
1432	김창수	11	청년2부	박영희(11)	1461	이소현	2	청년2부	이창준(4)
1433	김영태	2	소망부	박영희(10)	1462	노예은	19	대학부	정성태(15)
1434	정복성	5	장년3부	김준희(11)	1463	이재현	14	청년3부	홍숙희(14)
1435	정복성	5	장년3부	김준희(11)	1464	홍지민	19	대학부	박순옥(8)

